

| 교회 및 교우 소식 |

1. 한사랑교회 주일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오늘 주일예배에는 성찬예식과 "\$1의 행복" 선교헌금이 있습니다.
3. 올해 2025년 경배찬양은 "하늘의 문을 여소서(임재)", 파송찬양은 "마라나타"입니다.
4. 새해 특별새벽기도회: 1월 7일(화)~10일(금) 오전 6시, Fireside room & Zoom Online
5. 신임 권사 임명: 박호순, 신임 집사 임명: 김재영
6. 집사 재임명: 김윤숙, 김주옥, 김준철, 김피터, 김현주, 김현준, 문철우, 박메리, 박영숙, 서지민, 엄지민, 엄태현, 오종길, 유진우, 이도윤, 이연수, 임형선, 조성은, 조원갑(은퇴)
7. 올해부터 청년부는 신용규 목사가 담당합니다.

대표기도 : 1/12 박호순 1/19 안혜숙 1/26 오종길 2/2 유성민

| 지난 주 헌금 |

주일헌금	2, 5, 24, 29, 30, 41, 45, 49, 53, 54, 55, 71, 74, 무명1, 청소년부1, 김경남, Daniel Park	\$564.00
십일조	17	\$200.00
성찬감사	36	\$100.00
감사헌금	35	\$50.00
선교헌금		
총계		\$914.00

헌금 interac e-Transfer 방법

*Recipient Name : "Vancouver Hansarang Church"

*Recipient E mail : vhc20100101@gmail.com

*Amount : 헌금액 *Message : 헌금 종류, 헌금 번호, 기타 내용

| 1월 사역 안내 |

#새해 특별새벽기도회: 1월 7일(화)~10일(금) 오전 6시, Fireside room & Zoom Online

#홀리스사역: 1월 15일 셋째 수요일 저녁 5:45-7:45

#운영위원회: 1월 27일 오후 5시

| 섬기는 분들 |

담임목사: 신용규 목사 / 청년부&Youth: 김성민 목사 / 어린이부: 권해리 사모

행정: 서지민 집사 / 찬양: 이호영 전도사 / 반주: 박난주 사모

제17권 1호 2025년 1월 5일



밴쿠버 한사랑교회
Vancouver Hansarang Church

www.hansarang.ca
18625 Fraser Hwy Surrey, B.C
담임목사 신용규 604 861 2175

오후 2시	인도 신용규 목사	
*경배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찬송가	새찬송가 550장	다같이
대표기도		박현영 권사
성경봉독	사도행전 1장 6-8절	다같이
설교	경계를 넘어서	신용규 목사
성찬예식		다같이
축도		신용규 목사
광고		인도자
*파송찬양	마라나타	다같이

* 표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We dream of **true revival** and **life transformation** in our times.
We want to see **all the nations** of the world come to know
and worship God through a **new generation**.

새벽기도회

화~금 아침 6시
교회 1층 Fireside room
온라인 줌(Zoom)

어린이부 예배

청소년부 예배
주일 오후 2시
청년부 모임
주일 오후 3시 30분

금요기도회

둘째 넷째주 금요일 저녁 8시
온라인 줌(Zoom)

미국의 경영대학원 와튼 스쿨의 애덤 그랜트 교수는 사람을 Giver, Taker, Matcher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Giver는 말 그대로 남에게 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Taker는 남에게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입니다. Matcher는 남이 무언가를 해줄 때에만 자신도 보답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까요?

흥미로운 사실은 Giver의 유형이 가장 적은 성공을 거둘 수도, 가장 높은 성공을 거둘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Taker, Matcher 유형의 사람들은 항상 중간 정도의 성공을 거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Giver는 가장 적게 성공할 수도, 가장 크게 성공할 수도 있을까요? 그 핵심은 바로 ‘지치지 않는 열정’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Giver는 실패합니다. 받기보다 주기 때문에 탈진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높은 성공을 거두는 Giver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타인을 섬기는 데서 오는 지치지 않는 열정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고 섬기는 삶은 지치게도 하지만 동시에 삶의 의미를 끊임없이 재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칠 때 쉬는 것은 항상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일을 줄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용량을 넓혀야 합니다. 삶의 여유가 있어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생길 때 기도도 더욱 열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보다 더 큰 대의를 추구할 때,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을 섬길 때 우리는 살아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단순히 일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삶의 열정을 회복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일이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2025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열정을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 교회 조직 |

[운영위원회]

유성민 장로
김준영 장로
김난형 권사

[목장]

God's will 목장(목자: 유성민)
늘푸른 목장(목자: 김준영)
서로인 목장(목자: 유진우)

[사역위원회]

사역팀장: 신용규 목사
운영위원장: 유성민 장로
예배팀장: 김준철 집사
관리팀장: 오종길 집사
행정팀장: 서지민 집사
재정팀장: 김난형 권사
친교팀장: 김미나 권사
선교팀장: 김현준 집사
새가족팀장: 안혜숙 권사
다음세대팀장: 유진우 집사

[한사랑 Sisters]

회장: 김윤숙 집사
부회장: 임형선 집사
부회장: 박난주 사모

[한사랑 Dreamers]

회장: 오종길 집사
총무: 김준철 집사

[한사랑 청년부]

섬김이: 유진우 집사

들어가는 이야기

- 삶의 경계 생각해보기
- 경계선을 넘는다면?

성경 이야기

- 사도행전: 경계를 넘어서는 초대교회 이야기
- (1) ‘나’의 경계 넘기
- (2) ‘민족’의 경계 넘기: 사도행전 1장 8절
- (3) ‘때’의 경계 넘기: 사도행전 1장 6-7절
- (4) ‘하늘’의 경계 넘기: 사도행전 1장 11절

나가는 이야기

- 내가 넘지 못한 경계는 무엇인가?
- 예수님은 경계를 허무시는 분

묵상을 위한 질문

-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삶의 경계에 대해 말해봅시다
- 성령강림 이전의 제자들이 극복하지 못했던 경계는 무엇이었나요?
-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삶의 경계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나누어봅시다